광주시-시의회, 공공기관 구조혁신 거센 마찰음

입법예고 등 기습 후속조치에 "거수기·들러리인가" 반발 시 "일정상 불가피" 맞서

광주시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창)는 13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의회 제공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 통폐합을 공식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한데 대해 "의회가 들러리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 광주시는 "일정상 불가피했다"며 맞서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과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입법예고했다. 의회 보고 등이 예고된 3월 임시회 개회 전 지난달 23일 발표한 민선 8기 혁신안의 후속조치를 미리 밟은 것이다.

구조혁신안은 관광공사(관광재단+DJ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통합이 주요 골자다.

광주시의 이 같은 행보에 시의회는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며 일방통행 행정과 '답정너 용역'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용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지난달 23일 시장이 혁신안을 발표했고, 의회에는 불과 하루전 일부 의원에게만 파편적·일방적으로 구두나 전화 통보했다"며 "이에 반발하자 13일 별도 중간 보고회를 열기로 약속해 놓고서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논란이 된 일부 조례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 제정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의회에 중간보고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무소불위 행정"이라고 밝혔다.

김나윤 의원(민주당·북구6)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억9,6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광주시의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은 지난해 10월 30일 시작해 다음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혁신안은 4월 임시회 개회 열흘 전인 4월17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상 최소 20일 간의 입법예고와 함께 별도로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해 10일 입법예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심사 등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사항이 아니고 이해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정을 역산해서 고심 끝에 입법예고했다"며 "의회를 경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

도시철도 2호선, 내일부터 상무중앙로 공사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상무중앙로 BYC사거리~세정아울렛 구간 공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가시설과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일부를 철거하고, 수목을 옮겨 심은 후 단계별 교통전환계획에 따라 차로를 점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중앙로 공사 중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유도 안내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 홈페이지에 공사 구간과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광주교통방송을 통해 사전예고를 하는 등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전남 농촌체험·휴양마을 100만 관광객 유치

도, 28억 투입 시설 개보수 치유관광상품 개발 등 주력 '워케이션·웰니스' 대응

전남도가 올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한 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를 세웠다.

전남도는 13일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개발에 28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2023년 관광 추세인 '나'라는 핵심어에 맞춰 워케이션(Worcation)과 웰니스(Wellness) 등 일과 휴가, 건강과 행복을 즐기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치유관광상품 개발,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도는 우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근무 방식이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한옥, 고택 등 숙박시설 개보수에 4억원을 지원한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농촌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도록 명상, 족욕, 꽃차 만들기, 힐링 푸드 등 치유관광 상품 개발과 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 등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이 안심하고 숙박하도록 농어촌민박 400곳에 일산화탄소·가스 누설 경보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4억원을 투입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지난 3년간 여행을 하지 못한 관광객이 맛과 멋이 있는 전남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안전하고 재밌게 여행을 즐기도록 수용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 17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87만9,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117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렸다. 나주 세지화탑마을의 경우 7만8,331명이 방문해 22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광양 도선국사체험마을은 3만396명이 찾아 3억7,2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또 여수 사곡마을(4만3,976명, 2억100만원), 광양 백학동권역(3만5,030명, 2억3,600만원) 등도 대표적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거듭났다.

/정근산 기자

도립도서관, '책책빵빵' 찾아갑니다

이동도서관 서비스 운영 DVD 상영 등 프로그램

전남도립도서관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이 13일부터 도내 11개 군지역을 찾아간다.

이날 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나선 '책책빵빵' 서비스는 도서 대출,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DVD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서 대출 서비스는 각 방문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목록을 선정해 1인당 최대 10권을 대출해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할머니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프로그램은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꾀하고 노년층 여성에겐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DVD 영화 상영은 극장을 찾기 힘든 농산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줌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올해 상반기엔 7월 20일까지 도내 11개 군 지역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군부대, 노인·장애인시설 등 36곳을 찾아간다. 하반기 방문 지역은 7월 중 희망지를 조사하고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용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독서 소외지역 도민에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책 읽은 전남' 문화를 확산하는 등 문화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1년째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288-5215)로 문의하면 된다. /정근산 기자

시,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저소득층 적립금 1회 700원

광주시는 13일 "기존 알뜰교통카드에 저소득층의 적립금과 마일리지 적립한도를 늘리고 가입 카드사를 확대한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플러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알뜰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다. 시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월부터 저소득층 마일리지 적립금을 1회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고 마일리지 적립한도는 7월부터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확대(월 1만5,000원~4만2,000원 절감)키로 했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최초 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자동화해 주민등록등본·저소득 증빙자료 등 서류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출발·도착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구간을 설정토록 하고, 도보 수 측정 방식도 도입했다.

7월부터는 신한·우리·하나 등 기존 3개 카드사에 국민·농협·삼성·현대·BC 등 5개 카드사를 추가해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이 넓어진다.

알뜰교통카드는 알뜰카드 홈페이지(www.alcard.kr) 또는 은행·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아 앱을 설치한 후 월 15회 이상 카드와 앱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길용현 기자